



3면

"고용 유지·창출" 강조 문 대통령
'한국판 뉴딜' 선언

전주매일

2020년 4월 23일 목요일 (음 4월 1일) 제2523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학교 밖 청소년 코로나 예방 총력

전북도, 방역 패키지 '꿈드림 딜리버리 키트' 제공 비대면 식사·미니컴퓨터 임대·온라인 상담 등

전북도와 전북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코로나19로 인한 센터의 휴관이 장기화되면서 그동안 센터를 이용했던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 코로나 방역 패키지인 '꿈드림 딜리버리 키트'를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도는 22일부터 이달 말까지 도와 시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담당자들이 차량을 이용해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을 일일이 찾아가 키트 500개를 전달한다고 밝혔다.

코로나 19 방역패키지 일명 '꿈드림 딜리버리 키트'에는 손 소독제, 마스크(대한적십자사 제공), 칫솔치약세트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홍보책자 등이 포함되어 있다.

현재 도내에는 1,423명의 학교 밖 청소년이 있으며 약 940여명의 청소년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도는 또 올해 신규사업으로 진행하는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을 위해 코로나19 대응기간에는 비대면 식사 제공 계획에 따라 기존 센터 프로그램 이용 청소년에게 밥상, 반찬, 식재료 등 식사 대체 용품을 제공한다.

아울러, 센터 이용 학교 밖 청소년 중 학습형 청소년에게는 EBS 검증교시 및 수능교재와 온라인강의를 제공하고, 학습용 PC가 없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는 미니컴퓨터를 무상임대 지원한다.

도는 전라북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전라북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뿐만 아니라 개학 연기로 가정학습 시간

을 보내고 있는 도내 청소년들을 위해서도 온라인 상담 및 SNS 이벤트 등 다양한 상담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실제, 지난 3월에는 슬기로운 가정학습을 위한 온라인 심리검사 프로그램('상담백신')을 운영한데 이어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활용한 '전라북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퀴즈를 맞춰라!'

이벤트를 진행해 참여한 청소년들에게 편의점 기프트콘을 제공하기도 했다. 또한 상담이 꼭 필요한 상황인 경우 온라인으로 상담내용을 전달하고 내담자의 이야기를 서면으로 받는 등 센터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4월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외부 활동 제약으로 우울, 불안, 무기력 등의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청소년들을 위해 비대면 상담 서비스인 '마음키트'도 운영하고 있다.

'마음키트'는 네이버 카페 '전라북

도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에서 전문 상담자와 1대1 채팅상담을 통해 심리·정서적 지지를 도와주는 비대면 상담서비스이다. 이 프로그램은 전라북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063-273-1411)로 문의 후 접수 가능하며 전라북도내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과 학부모 누구나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다.

이숙이 도 여성청소년과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코로나19 극복을 돕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범씨 소독해오' 22일 임실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사철을 맞아 농민들이 범씨 온탕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온탕침범은 60℃의 물에서 10분간 소독 후 바로 10분간 냉수처리를 하는 방법으로 물과 종자의 양 등 소독 조건만 제대로 지킨다면 96% 정도의 카다리병 방제 효과가 있다. (사진=임실군청 제공)

베트남 외국인 격리지 이탈 확인

전주시, 법무부 통보 예정

자가격리자 현장 불시점검 등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전주시가 베트남 국적 외국인이 격리지를 이탈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2일 밝혔다.

전주시는 지난 21일 오후 2시경 베트남 국적 외국인(21) 불시점검 시 격리지를 이탈한 사실을 발견하고 경찰과 함께 현장 확인하여 이탈한 사실을 확인했다.

지난 4월 9일에 입국한 베트남 국적 A씨는 9일 음성판정을 받고 원룸에서

자가격리 중이었다. 현재 전주시와 완경경찰서에서 A씨에 대한 조사를 파악 중에 있다.

도는 전주시에서 A씨의 무단이탈 사실을 전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통보도록 조치하였으며, 전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사실확인을 거쳐 법무부 이민조사과에서 관련 사실 검토 후 강제출국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도내 3번째 외국인이 이탈한 사례로

현재까지 도내 이탈자는 총 6건, 9명이 발생했다.

전북도는 지난 10~17일 자가격리자 합동 불시점검을 실시하는 등 자가격리자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을 추진하고 있으며, 강화된 처벌 규정을 바탕으로 격리장소 무단이탈, 격리조치 거부 등 위반행위에 무관용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들에 대하여 엄정대응하고 있다. /김진성 기자

고교학점제 준비학교 6곳 지정

전북교육청, 전주중앙여고·호남제일고·김제서고 등

전주와 익산, 김제지역 6개 학교가 올해 고교학점제 준비(선도)학교로 지정됐다.

전북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전주 중앙여고와 호남제일고, 완산고, 남성고, 전북여고, 김제서고 등 2020학년도 고교학점제 시범학교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지정된 전주고, 장수고, 순창고, 전주여고, 한일고, 유일여고 등 6개교를 합쳐 모두 12개교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 마련을 위해 전문직 3명, 파견교사 2명, 주무관 1명 등 총 6명으로 구성된 중등 교육과정지원센터 T/F팀을 편성 운영한다. 이는 고교학점제 도입기반 조성에 필요한 중·장기적인 로드맵 설계 및 현장 밀착지원, 학교교육과정 지원 및 정책 추진 과정의 연차적

준비를 위함이다.

고교학점제는 고등학생도 대학생처럼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해 이수하고 누적학점이 기준에 도달할 경우 졸업이 인정되는 제도다. 이에 따라 획일적인 교육으로 학생들의 학습 동기와 흥미를 유발하기 어렵다는 단점을 보완해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는 학생 맞춤형 교육을 실현시키기 위함이다.

한편, 고교학점제는 2018~21년까지 학점제의 도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선도학교를 운영하며, 2022~24년에는 현행 교육과정을 고교학점제에 적합하게 수정해 부분 도입해 2025년부터 전국 고등학교에 완성된 형태의 고교학점제를 본격 시행하게 된다. /장은성 기자

"전주, 코로나 대응 모범도시"

문재인 대통령, SNS 통해 '해고없는 도시' 선언도 극찬

문재인 대통령이 전주발(發) 상생실현인 착한 임대운동과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이어 '해고없는 도시' 선언에 나선 전주시를 코로나19 대응에 항상 앞장서는 도시로 평가했다. 대통령이 이처럼 한 지자체를 연이어 모범사례로 언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문 대통령은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전주시가 '해고없는 도시'를 선언했다. 지역 노사민정이 합심해 대타협을 이루고, 지역 일자리를 지키는 상생선언"이라며 "코로나19로 지역경제 상황이 매우 어렵고 고용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 분담으로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겠다는 의지를 사회적 약속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극찬했다.

이어 "일자리 지키기가 경제위기 극복의 핵심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매우 의미 있는 실천"이라며 "선언에 함께한 지역의 모든 경제주체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전주시는 코로나19 대응에 항상 앞장서 주고 있다"면서 "전주에서 시작한 착한 임대료 운

동이 전국적 운동으로 번져나갔던 것처럼, '해고 없는 도시' 상생선언도 전국으로 확산되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국면에서 전주에서 시작돼 전국으로 확산된 착한 임대운동과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언급하면서 전주를 코로나19 대응 모범을 보인 도시로 손꼽았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지난 2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주시와 시민들께 박수를 보낸다"며 칭찬행렬의 포문을 연 것을 시작으로, 17일 4개 경제부처 합동 업무보고와 3.1절 기념식에서 각각 전주발 착한 임대인 운동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상생협력 우수사례로 언급했다.

지난달에는 박원순 서울특별시시장, 박남춘 인천광역시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재한 '코로나19 수도권 방역 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저소득층 5만 명에게 52만7천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키로 한 전주시의 수범사례를 대표적으로 거론하기도 했다. /김윤성 기자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행동수칙

자료: 질병관리본부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일반 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하지 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 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

전주매일 캠페인